

기후위기·탄소중립·식량안보...대안을 찾다

식량위기 대한민국

남재작 지음



미래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부분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 식량 분야의 악영향은 전 세계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미래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식량 공급망을 유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고 말한다. 기후위기가 식량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지구는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피리협약은 선진국에 대한 감축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저자는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줄이는 정도를 넘어 아예 배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탄소 중립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사실 시대의 전환은 기존 질서의 붕괴를 전제한다. 인류는 녹색기술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산업 발달로 대변되는 구체제가 녹색 전환에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일 수 있다.

더욱이 식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외국 농업에 그다지 관심이 높지 않다. 우리의 식탁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그런 연유다. 저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식탁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명확한 것은 "국내의 자급률을 높이든 해외의 공급망을 탄력하게 하든 미래의 어떤 위기에든 식량 공급망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원 전 원장은 "이번 세기 중반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20억 명이 늘어 100억 명 가까이 되고 경제 성장으로 먹는 욕망이 극대화되는 세상을 마주하리라 예상된다"며 "남재작 박사는 우리나라가 직면할 식량 위기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알려준 뿐만 아니라 해법을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고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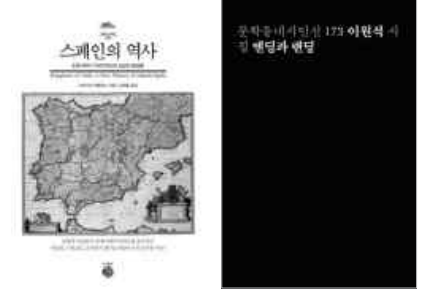
〈월일북·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책

▲사기꾼-그의 변장 놀이=명작 '모비딕'의 저자 허먼 멜빈의 마지막 장편소설이자 당대 미국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작품이 재출간됐다. 만우절인 4월 1일 미시시피강을 따라 운항하는 증기선 피텔호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여객선에서 '신뢰'를 주장하는 승객들이 등장하며 진행된다. 신뢰라는 주제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한다. 〈문학과지성사·1만8000원〉



▲부동산, 부채, 버블이 경제학=금융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연구 및 강의를 펼치고 있는 금융의장 대표 박덕배의 신간. 지난 20여년 간 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발전시키고 최신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를 조망하는 정확한 분석이 절실한 시기에 정통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현실 경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또다른우주·1만8000원〉



▲스페인의 역사=브라이언 캐틀러가 8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스페인 이슬람 역사를 한권으로 정리했다. 무슬림이 이베리아반도에 처음 들어온 때부터 약 900년 후 17세기 초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의 스페인, 특히 알 안달루스에서 일어난 역사를 새로운 시각과 관점 아래 서술했다. 〈도서출판 갈·4만2000원〉

▲엔딩과 랜딩=문헌동네시인선 173번으로 이원석 시인의 첫번째 시집을 펴냈다. '패기와 스케일'이 돋보이는 장시편 선보여 '현실과 꿈, 무의식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어떤 새로운 모험의 결과물들을 내놓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데뷔한 시인은 이번 첫 시집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목소리를 잃은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펼쳐 보인다. 〈문학동네·1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말총 말고 말사탕=많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가상 세계의 '나'는 현실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게임을 할 때면 서슴없이 나쁜 말을 내뱉는다. 또 게임을 잘하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다투기도 한다. 윤희연이 글을 쓰고 이갑규가 그림을 그린 이 책은 평소에는 친절하다가도 게임만 하면 입이 거칠어지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EBS BOOKS·1만2000원〉

▲말총 말고 말사탕=많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가상 세계의 '나'는 현실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게임을 할 때면 서슴없이 나쁜 말을 내뱉는다. 또 게임을 잘하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다투기도 한다. 윤희연이 글을 쓰고 이갑규가 그림을 그린 이 책은 평소에는 친절하다가도 게임만 하면 입이 거칠어지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EBS BOOKS·1만2000원〉

▲우리 반 토끼맨=유쾌한 목소리로 어린이를 응원하는 이장근 시인의 세번째 동시집. 이번 동시집은 단단한 내면을 지닌 어린이 화자들이 등장한다. 또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하며 다른 누군가를 편견 없이 환대할 줄 아는 마음씨를 지녔다. 능청스러운 유머까지 더해져 한층 사랑스러워진 이장근의 동시 61편이 어린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창비·1만2000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잘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돈·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 돈과 자본주의를 바로 알고 미래를 세우는 법, 동료들을 이끌어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지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일본의 만화가이자 강사인 후루모토 유야의 '똑똑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살아있는 지식 시리즈' '돈' 편. 〈길벗·1만2000원〉

아웃사이드 아티스트...잊혀졌던 작가와의 즐거운 만남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이소영 지음



책에 등장하는 스물 세명의 작가 가운데 내가 아는 이는 단 세명이었다. 앙리 루소, 페르디낭 슈발, 루이 비방. 그리고 정확한 작가의 이름은 모르지만 작품이 익숙한 이가 세 명 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읽었다. 책을 죽 넘겨가며 가장 마음이 당기는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야기부터 골라 읽었다.

스트 이소영(조이뮤지엄 대표)의 책이다. '잊혀졌거나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의 삶과 작품에 매료된 작가는 사라진 화가들의 작품인 '아웃사이드 아티스트' (outside art)를 소개한다. 그의 전작이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화제가 됐던 '모지스 할머니 열풍'을 일으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랜마 모지스'와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등인 점을 보면 저자의 이번 책은 그가 새롭게 찾아내 우리에게 데려온 '새로운 작가'와의 즐거운 만남임에 틀림없다.

사후 70년 만인 2016년 영국 달위치 픽처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 유니프레드 나이츠는 로마 교황상을 받은 첫번째 여성 화가였지만 철저하게 잊혀졌던 작가다. 책에 실린 '홍수'는 성경 속 노아와 그 가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작가의 전쟁 경험이 투영돼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스물 한명의 움직임과 독특한 구도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작품이다.

책의 표지화로도 쓰인 작품의 주인공 빌 트레일러는 85세 때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95세까지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다. 그는 이소영 작가가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수집하게 한, 그리고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한 최초의 작가였다. 거리에서 주문 광고지나 판자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의 드로잉 작품들은 자유롭고도 성실하다.

흑인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호레이스 피핀은 1차 대전 당시 부상당해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지지하며 난로에 달근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 속 가족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거룩하다. 우편배달을 하던 페르디낭 슈발은 어느 날 신기하게 생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자연의 재료를 선물이라 여기고 이 재료로 공전을 짓자'고 마음 먹는다. 이후 그는 돌로 공전을 짓기 시작하고, 꿈을 꾸지 33년이 되었을 때 공전을 완성한다. 작가는 슈발의 삶에서 탐내고 싶은 단 한가지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이 책이 "자신의 삶이 소멸되는 것이 두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찮은 예술도 없고, 하찮은 삶도 없다"고 덧붙인다. 〈창비·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